

ICCAT 패널4 북방황새치 MSE 회의(3차) 참석 결과

□ 개요

- (일시/장소) '23.10.10(화)~10.11(수) 17:00~01:00 / 화상회의
- (참석자) 미국, 캐나다, 일본, EU 등 패널4 CPC 대표자 약 60명
- (주요내용) 북방황새치 관리전략평가(MSE) 진행 경과 설명, 개발된 예비관리절차(CMP) 소개, 관리목표 옵션 결정, 향후 계획 등

□ 주요내용

- 다음달 연례회의에서 최종 MP를 채택할 예정으로, 본 회의에서는 현재까지 MSE 진행 경과와 개발된 CMP들에 대한 설명, 최종 관리목표 선정, 연례회의까지 과학위에 요청할 작업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.
- MP 핵심요소인 관리목표(Management Objective) 옵션들이 아직 완전히 결정이 되지 않는 상태로, 이번 MSE 회의에서 컨센서스가 형성되어가는 분위기였음.
→ CPC들은 단기적으로 많이 어획할 수 있는 CMP(PGK 60%)를 선호
- 안전성(Safety) : 총생물량이 B_{LIM} (자원상태가 회복되기 어려운 한계수준) 미만으로 떨어질 가능성
 - 옵션 5%, 10%, 15%가 있었고, 참다랑어와 동일하게 15%로 합의가 이루어지는 듯했음.
 - 어느 CPC가 10% 옵션에 대한 작업도 해 줄 것을 과학위 작업반에 요청하였고, 일본은 10%로 작업하는 것이 향후 선례가 되어서는 안됨을 보고서에 기록 요청함.

- 모든 CMP들이 최소 안정성(15%)은 충족하고 있어서 안정성은 최종 CMP 선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.
- **자원상태(Status)** : 자원상태가 Kobe 플롯 녹색영역에 위치할 가능성 (PGK)
 - 51%, 60%, 70% 옵션이 있었고, 51%는 너무 낮은 수치여서 탈락되고, CPC들은 가능한 한 단기적으로 많이 어획할 수 있는 60% 옵션을 선호하는 분위기였음.
 - 문제는, 개발된 CMP들 중 PGK 60%(단기, 중기, 장기)를 충족하지 못하는 CMP들이 여러 개 있었음. CPC들은 해당 CMP들이 PGK 60%를 충족하도록 CMP에 대한 조정('tuning', 튜닝이 이루어지면 단기, 중기, 장기 TAC가 다소 감소)을 연례회의까지 해줄 것을 과학위 작업반에 요청하였음.
- **관리주기(Management Cycle)** : MP 검토 주기
 - 3년 주기와 4년 주기 옵션이 있었음.
 - 현재 참다랑어 MP 주기가 3년으로, 북방황새치 MP 주기를 4년으로 하게 될 경우, '32년에 참다랑어와 북방황새치 MP를 동시에 검토해야 하는 작업 부담 우려가 제기되어 3년으로 컨센서스 형성.
- **변동율(Variability)** : 관리주기 간 TAC 최대 증감율
 - 미국은 총생물량이 B_{MSY} 이상(Kobe 녹색 또는 노란색)일 경우에는 TAC 최대 증가율을 +25%로 하되, 총생물량이 B_{MSY} 이하일 경우(Kobe 적색)에는 TAC 최대감소율에 제한이 없도록 하는 'bifurcated cap'('양쪽 방향으로 상이한 캡' 적용)에 대한 작업 및 검토를 하는 것이 2차 MSE 회의 합의사항이므로 과학위 작업반이 연례회의까지 이 작업을 합의대로 진행해야 함을 주장하였음.

- EU, 일본은 TAC 무제한 감소 시나리오에 부정적인 입장으로, 여기에 대해 어차피 연례회의에서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므로 할 일이 많은 과학위 작업반에 추가 부담을 주지 말자는 입장이었으나 미국은 2차 MSE 회의 합의사항을 번복할 수 없음을 재차 강조하였음.
- **최소 변동폭(Minimum Change)** : MP 구동 결과 TAC 변동폭이 특정 수치 미만일 경우,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TAC를 변경하지 않는 것.
 - 200톤 수치에 대한 선호가 있었으나 최종 합의되지는 않음.